기독교 소설에 나타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윤리적 주체의 의미

—전영택과 임옥인의 소설을 중심으로

정재림(한국항공대학교 겸임교수)(윤리/역사 4-2)

I. 서론 :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

한국 기독교문학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피해 갈 수 없다. 하위장르에 대한 연구가 장르적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기독교문학을 논하는 연구가 '기독교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문학연구에서의 '기독교문학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자기 규정에는 보다 복잡한 고민들이 내재해 있다. 즉 기독교문학이 '기독교'와 '문학'의 합성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두 항 가운데 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문학의 본질을 기독교 신앙에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예술로서의 문학에 둘 것인지에 대한 가치평가와 다른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종교적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문학성을 소홀하게 된다면, 그 문학작품은 단순한 호교문학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반면 기독교문학의 본질을 문학에서 찾게 된다면, '예술을 위한 예술'의 강조로 치달아 세속문학과의 차별성을 잃게 되기 쉽다. 양극단이 내포한 위험을 고려한다면, 이상적인 기독교문학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되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문학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문학을 "복음을 정신적 지주로 하여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한 언어 예술(김봉군, 2010a: 81-82)"로 규정한 김봉군의 정의나, 이상적인 기독교문학 작품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세계와 문학작품이라는 예술적 세계를 동시에 충족(홍문표, 2010: 119)"시켜야 한다는 홍문표의 주장은 타당성을 갖는다.

다시 정리하자면, 진정한 기독교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가치'와 '문학의 예술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학의 예술성은 보편적인 문학의 본질적 요건이기도 하므로 별도의 고민을 수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 혹은 기독교적 상상력이 무엇인가, 혹은 그 정신적 가치가 문학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자마다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세계관[1] 차원에서 기독교문학에 접근할 때, 일차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기독교적 소재를 활용한 문학을 기독교문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1)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 '세계를 해석하고 행동하는 틀'로 정의된다. 김영한은 세계관을 인식의 틀, 사고의 준거 내지 지침, 사고와 행동의 근본 전제, 삶의 비전, 세계상, 행위의 지침으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김영한, 『기독교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9, pp. 21-53 참고.

주요 인물로 등장하거나 성서의 모티프가 서사 구조의 핵심을 이루더라도, 기독교적 요소가 오히려 반(反)기독교적 주제를 형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적 소재의 활용이 기독교문학의 본질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2)]

송상일이 기독교문학에서 기독교가 소재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문제'로 추구되어야 함을 역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송상일, 1979: 1214) 루카치(Lucas)의 소설 이론을 인용하면서, 그는 소설이 '신 없는 삶의 도로(徒勞)와 그 파탄의 기록'이며 기독교 소설에서 신앙(또는 신)은 부재의 양태나 훼손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문학을 단순히 소재 차원으로 환원할 수 없다는 지적, 기독교 종교를 회의할 수 없는 가치로 추구하는 문학이 결국 교훈주의나 목적문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지적에는 동감하지만, 과연 이 시대를 신이 부재하는 시대라고 확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재하는 신의 역설적 증명을 통해서만 기독교문학의 진정성이 획득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적인 것은, 신의 부재를 강조하는 그의 논리가 기독교문학과 세속적인 보편문학의 차별성을 지우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김봉군 역시 기독교문학이 소재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김봉군, 2010b) 그는 기독교문학을 '기독교적 상상력으로 창작된 문학'으로 규정하며, '기독교적 상상력'을 성서에 기초하고 그것을 정신적 지주로 갖는 인간의 창조적 정신과 그 역동적 에너지로 정의한다. 즉 기독교문학은 '기독교의 정신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를 추구하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봉군, 2010a) 그는 세계관 차원에서의 기독교문학과 세속문학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독교문학의 모든 진술은 <주께서 나(우리·너·너희·그·그들)를 OO케 하시다.>와 같은 구문식의 심층구조를 일탈할 수 없다. '나'를 주체로 하는 인본주의의 세속적 문학과 이 점에서 선연히 구별된다.(김봉군, 2010a: 85)" 기독교문학이 인간-주체를 주어로 한 문학이 아니라 신을 주어로 삼는 문학이라는 비유는, 기독교적 소재의 활용이 기독교문학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백하게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런데 '기독교문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된 문학이다'라는 잣대를 가져올 때, 기존의 한국기독교문학은 이 기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것으로 평가되기 쉽다. 가령, 개화기나 근대 초기만큼 한국문학사에서 기독교가 중요한 소재나 주제로 등장하던 시기도 없었다. 즉 기

---

2) 테오도르 치올코프스키는 유럽의 중세는 종교적인 문학과 완전히 중첩되었던 시기였으나, 계몽주의 이후 급격한 세속화가 이루어지며 세속문학의 상상력은 기독교의 인식론적 장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 기독교적 상상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에 세속문학에서도 기독교적 상상력이 활용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평가한다. 성서의 '타락 모티프'를 활용하는 볼테르의 『캉디드』, 호프만의 『금단지』, 조이스의 「애러비」, 헤세의 『데미안』 등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이 작품들에서 성경의 '타락 모티프'는 중요한 서사의 구조나 장치로 활용되지만, 그는 이것이 이 소설의 종교성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한다. 테오도르 치올코프스키, 「세속 시대에서의 종교와 문학: 비평가와 딜레마」, 고진하 역, 『현대 문학과 기독교』,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4. 참고.

독교가 비판의 대상이든 옹호의 대상이든 간에, 기독교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에서 이 시기만큼 기독교가 호황을 누리던 시기도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새로운 종교로 조선에 상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대의 문학인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낼 만한 역량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개화기 문학에 등장하는 기독교는 정신성이나 세계관으로서의 종교라기보다 서구문물에 대한 일종의 기호나 상징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도를 주인공으로 내세우거나 기독교적 모티프를 적극 도입한 이광수나 김동인, 김동리 등의 문학에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고 하겠다.(정재림, 2010: 267)

세계관 차원에서 기독교문학을 논의하게 될 때, 특히 소설 장르에서 모범적인 기독교 소설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주관적 정서를 표현하는 시 장르의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세계관을 구체화하여 형상화해야 하는 소설 장르의 경우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시에 비하여 기독교 소설이 부진한 이유를 장르적인 특징에서 찾았던 김병익의 지적은 이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3] 서구에서 전래된 기독교가 문화 전반에 녹아져 자연스러운 세계관으로 형성되어야 그것을 체화한 기독교 소설이 등장할 수 있다는 한승옥의 견해 역시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한승옥, 2010: 311) 그에 따르면 기독교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는 죄의식이나 구원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기독교적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룬 한국 소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4]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기독교문학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하되 문학의 예술성을 갖춘 문학이어야 함과, 세계관의 문제가 단지 소재적 차원에 국한될 수 없다는 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소설의 부진성이 세계관의 구체화를 본질로 하는 소설의 장르적 특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 한국 기독교 소설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이상적 기독교 소설이 드물다는 사실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모범적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지나치게 완고한 기준설정에 의해 생산될 결과가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문을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

3) 김병익은 주관적 감정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와 달리, 소설은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장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세계관의 형성이 오랜 시간을 요구하므로 완숙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기독교 소설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청될 수밖에 없고, 이것이 한국기독교문학에서 소설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라고 말한다. 김병익, 「한국소설과 한국기독교」, 『현대 문학과 기독교』, 김주연 편, 서울: 문학과지성사, 1984. 참고.

4) 기독교 소설의 핵심주제가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죄의식을 진지하게 다룬 한국 소설이 별로 없다는 한승옥의 지적은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 주장이 보다 설득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편소설이 우세종을 차지하는 한국문학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즉 한국 소설에서 기독교적 죄의식의 문제가 천착되지 못한 이유는, 작가의 역량부족 탓이라기보다는 이 주제가 장편소설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일 듯하다.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 소설의 부진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인생의 단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단편소설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기존의 기독교문학을 함량미달로 치부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서양의 기독교문학과 견줄 만한 기독교문학이 한국문학에는 없다는 자조보다는, 한국 기독교문학의 전통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을 찾는 가운데 기독교문학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고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두 작가, 전영택과 임옥인의 문학을 고찰하며 기독교문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본고는 전영택과 임옥인을 대상작가로 선정하였다. 첫째, 두 작가의 세계관을 검토하는 별도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이다. 전영택은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서울감리교 신학대학교수 등을 역임한 목회자이자 소설가이다. 임옥인 역시 자기 인생의 세 기둥이 '교육, 문학, 신앙'이라고 밝힐 만큼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창작활동을 임했던 소설가이다. 둘째, 두 작가가 기독교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는 점이다. 두 작가의 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기독교적 교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서사적 긴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같은 문학사적 평가는 역설적으로 두 작가가 기독교 세계관의 강력한 지배를 받으며 창작활동을 수행했음을 증명해 준다.

하지만 본고의 목적이 그들의 기독교 소설의 전모를 밝히는 데 있지는 않다. 본고에서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설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적 주제의식이 전면에 배치되지 않은 작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작가의 작품에는 이웃의 가난과 고통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윤리가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본론의 1장에서는 이들 작가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레비나스와 쉘러의 '타자 윤리학'과 어떻게 공명하는지를 살펴보고, 2장에서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윤리적 반성을 일깨우는 전영택 문학의 특성을, 3장에서는 타인을 가족으로 끌어안으려는 지향을 갖는 임옥인 문학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타자와의 만남과 윤리적 주체

우리는 왜 이웃을 선대(善待)해야 하는가? 비기독교인은 이 문제에 대해 공리주의적 접근이나 이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적 입장에 본다면, 이웃에 대해 윤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덕목이다.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듯이 기독교인에게는 과부, 고아, 나그네로 대표되는 가난한 이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다.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도덕적 행동의 원인을 이성에서 찾는 칸트적인 입장과 본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웃을 선대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감동한 계율로 받아들여 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막 12: 28)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이러니하게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이제까지의 윤리학은 이성이나 지성을 도덕 판단의 도구로 사용하는 윤리학설, 즉 칸트적인 입장에 기울어진 윤리학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금교영, 1999: 4) 이성을 근거로 제시하는 기존 윤리학의 계보에서 볼 때, 사랑과 동감의 능력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는 전제 하에 ‘타자 윤리학’, ‘동감의 윤리학’을 전개하는 레비나스(E. Levins)와 쉘러(M. Scheler)의 철학은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 쉘러는 감정을 정신보다 열등한 차원으로 취급한 이성주의자들과 달리, 감정이 인간의 윤리적 삶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역설하며, 감정의 가치 직관만이 선을 보장한다는 ‘감정론적 윤리학’을 전개한다.(Max Scheler, 2006) 사랑의 윤리학으로 나아가는 쉘러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면서, 인간에게는 타인의 고통 내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반작용하는 ‘동감’[5] 능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쉘러의 견해에 따른다면, 우리는 이성과 지식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공감력을 통해 윤리적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쉘러의 입장에 따른다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칸트식의 정언명령이 아닐 수 있게 된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선함이 인간에게 내재해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쉘러의 철학과 레비나스의 윤리학은 공유점을 갖는다. 레비나스가 후설과 하이데거에게 철학적인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는 후설과 후이데거의 철학을 넘어서고자 한다. 이들에 대한 레비나스의 비판은 “서양 존재론은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전체성의 철학(서동욱, 2000: 140)”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나치의 공포를 직접 체험했던 유태인 철학자로서 레비나스는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체주의가 출현한 것을 하나의 우연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는 주체의 자기동일성을 중심에 놓는 서양의 형이상학, 즉 “타자를 동일자로 환원하는 서구 존재론(앞의 책, 141)”이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비극을 필연적으로 발생시켰음을 지적한다. 주체 중심의 철학을 비판하는 레비나스는, 그래서 이제까지의 서양철학에서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타자’의 존재에 주목한다.

레비나스가 강조하는 타자란 결코 주체(동일자)로 환원되지 않는 타인이다.(강영안, 2005: 31) 즉 어떤 친밀성에 의해서도 용해되지 않는 낯선 자인데, 이 타자는 주체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성을 가진 존재다. 주체가 아닌 타자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주체의 죽음’을 역설하는 프랑스 철학과 같은 류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주체의 해체로 나아가는 해체철학과 달리, 레비나스의 궁극적 목적은 “주체성의 변호(강영안, 2005: 32)”, 즉 ‘윤리적 주체’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 그는 타자의 얼굴을 통해 윤리적 주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가 말하는 타자란 예컨대

5) ‘동감(同感)’은 'Sympathie' 또는 'Mitgefuehl'의 번역어로 ‘공감(共感)’으로도 번역된다. 조정옥은 공감이 타인의 고통을 타인과 함께 느끼는 작용에 중심을 둔 반면, 동감은 타인과 같은 고통 내용을 함께 느낀다는 의미로서 작용이 아닌 고통 내용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후자가 적절한 번역어라고 지적한다. 본고는 이 의견에 따라 ‘동감’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막스 쉘러,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조정옥 역, 아카넷, 2006, pp.5-12.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와 고아'이다.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 맞고 죽어가는 타자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를 바치는 것, "여기 제가 있나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참된 인간성의 차원이 열린다고 주장한다.

이성이 아니라 감성, 주체가 아니라 타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레비나스와 쉘러의 철학은 서양 윤리학의 역사에서 독특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체에서 타자로 강조점을 이동시키는 이들의 윤리학은 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기독교적 세계관 위에서 형성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6] 기독교의 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분리될 둘이 아니라 결국에는 동일한 것이다. 레비나스가 고통받는 타인의 얼굴을 통해서 무한으로서의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천착하기보다 타인의 얼굴로 계시되는 하나님을 그려내는 데 주력하는데 전영택과 임옥인의 소설이 기독교적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과 윤리적 자각: 전영택의 소설

전영택은 한국의 기독교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김동인, 주요한, 김환과 함께 최초의 순문예지를 만든 『창조』의 동인이었다는 사실과, '기독교적 휴머니니즘'에 입각해 기독교문학을 창작을 대표작가라는 점이 고평되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 동인으로 활동했던 김동인, 주요한에 대한 연구와 비교해 보면, 전영택에 대한 문학사적 평가 및 연구는 대단히 소략하다. 목사였던 전영택이 문학창작에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문학적 평가의 근본 원인은 전영택 문학이 기반하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한 반감, 혹은 기독교와 문학이 공존불가능하다는 무의식적 편견에 있다고 하겠다.

전영택의 문학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정도의 차이를 보이긴 하나, 대개 전영택의 문학이 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전기 소설과 기독교적 휴머니즘에 경도된 후기 소설로 이분된다는 것, 기독교적 교훈주의에 함몰된 후기 소설에 비하여 전기 소설이 문학적 가치를 지닌다는 평가로 요약된다.[7] 백

---

6) 레비나스가 기독교보다는 유대교에 가까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무한자(신=타인)와의 만남을 통한 주체의 형성을 논하는 그의 철학이 기독교와 배리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레비나스 이론과 기독교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원빈, 『레비나스와 기독교』, 2010, 서울: 북코리아. 참고.

7) 논자에 따라 1기 '자연주의적 경향', 2기 '인도주의적 경향', 3기 '기독교적 경향'으로 나누기기기하나, 자연주의적 경향에서 기독교적 경향으로의 이동으로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송하춘, 「전영택 문학의 특질」, 『월간문학』, 1976.
강요열, 「전영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1.
김세령, 「전영택의 초기 소설 연구」, 『상허학보』 제6집, 2000. 8.
임희종, 「늘봄 전영택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5.
표언복, 「늘봄 전영택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사상』, 1996.
소영현, 「1920년대 초반 예술/윤리의 자기구성」, 『현대문학의 연구』, 2007.
김만수, 「늘봄 전영택의 삶과 문학」, 『화수분』 해설, 문학과지성사, 2008.

철은『창조』에 실린 작품에서 직접적인 기독교 영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만기(晩期)로 오면서 설교적인 면으로 기울여졌다고 평가한다.(백철, 1964: 105) 오창은은 전영택의 소설을 "지식인과 하위계층, 그리고 윤리의 문제"에 집중한 초기 작품과, "기독교적 세계관을 매개로 갈등의 화해를 추구"한 후기 작품으로 분류한다.(오창은, 2009: 189) 하지만 전기와 후기로 분류하는 식의 작업은 전영택 문학의 전반을 관류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즉 전기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지 않거나 억제되다가, 후기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전면화 된다는 식의 논리로 흐르기 쉽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후기를 관통하는 작가의식이 존재하며 그것이 전기와 후기에 굴절되어 표면화된다고 보는 것이 전영택 문학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유용한 가설일 수 있다.

본고는 신학생의 신분으로『창조』동인으로 창작을 시작하던 초기로부터, 신학교 교수이자 목회자로 창작에 임했던 후기에 이르기까지 전영택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핵심적인 사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고 본다. 자연주의적 경향을 보인다고 평가되는 초기 소설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표현되며, 그것이 동시기 작가들과 전영택이 차별되는 뚜렷한 지점이라는 것이 그 근거이다. 왜냐하면 동시기 작가들이 '자기'라는 것에 몰두하는 문학적 경향을 보일 때, 전영택이 '자기(주체)'에 의해 배제되고 소외된 약자에 관심을 가지는 독특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가 그의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화된 타자에 대한 관심이라는 초기 소설의 문제의식은 기독교적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비극적인 현실의 모습을 냉정하고 정직하게 그리는 데서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난한 이웃의 불행을 냉정하게 응시하는 태도는 윤리적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기독교적 윤리를 간접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비기독교 독자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제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1) 주변화된 타자를 드러내는 윤리감각

『창조』창간호에 실린 혜선의 사 (1919)와『창조』3호에 실린 운명 (1919)은 표면적으로 볼 때, 동시기의 유행하던 주류담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즉 이광수의『무정』(1917) 이후 하나의 모럴로 등장한 자유연애를 주된 모티프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혜선의 사 의 주인공 '혜선'은 여학교 학생이다. 결혼을 했는데도 그녀가 여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공부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동경 유학생인 그녀의 남편이 동경에서 만난 신여성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다. 신식교육을 받았음에도 구식 이데올로기 속에 살아가는 혜선이 남편의 이혼 통고에 충격을 받고 자살한다는 것이 소설의 줄거리인데, 작가 스스로가 '습작'이라고 말할 만큼 이 소설은 기법상을 미숙함을 노출하고 있다.

오창은,「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인식과 윤리의식」,『한국문학논총』제52집, 2009.

하지만 주목할 바는 당대의 유행이었던 자유연애를 다루는 전영택의 독특한 태도이다. 즉 자유연애와 이혼이라는 동일한 소재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 창간호에 실린 다른 작품들과 혜선의 사 사이에는 소재를 다루는 관점과 태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8] 황혼 등의 다른 작품은 전처와의 이혼을 통해 과거와의 결별을 선포하며, 신여성과의 자유연애를 통한 '참결혼'을 가치있는 것으로 이상화한다. 하지만 전영택은 '참자기'의 건설이라는 『창조』 동인들의 구호를 따라가면서도, '자기' 건설의 당위 속에 희생되는 타자에 관심을 갖는다. 즉 "시대가 나은 불상한 여성의 가련한 죽음"(전영택, 1919: 59)을 보아달라는 작가 후기의 말처럼, 이 소설의 초점은 혜선의 남편과 최정희의 '참자기' 실현과정에서 희생물이 되고 마는 혜선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참자기의 실현과 전처와의 이혼을 당위로 내세우는 다른 동인들과 달리,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하고 희생되는 여성에 관심을 두는 데서 전영택의 독특한 윤리감각은 확인된다.[9] 즉 그는 자유결혼의 긍정성과 구식결혼의 폐해를 보여주는 한편,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외치는 새로운 주체들의 주장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으로든 타자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체에 의해 감춰진 주변부의 낮은 목소리에 대한 관심은 운명 에서도 확인된다. 운명 의 주인공 오동준은 동경유학을 마치고 온 지식인으로 만세사건에 연루되어 투옥된 인물이다. 소설은 남성 주인공 동준을 초점화자로 내세우기 때문에 소설에는 남성 주인공의 내면심리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그가 새삼 자각하는 것은 '자기'의 중요성이다. "각각 자기 생각이 제일 가치 있고 가장 긴요한 줄로 알고 자기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리라.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의 문제만 바로 해결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리라." 동준 역시 감옥에서 자기 생각에 골몰하는데, 그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애인 H에게 아무 소식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연락이 없는 애인에 대한 갖가지 상상을 하다가 그녀를 '여성적 사탄'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출옥하여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그녀의 행위는 '여성적 사탄'이라고 불릴 만한 것이었다. 그가 감옥에 있던 사이에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귀어 아이까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운명 은 초점화자인 동준의 시각에서 시종일관 서술되기 때문에 독자는 자연스럽게 동준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감옥으로부터 출옥, 동경으로의 동준의 행로를 따라가며 연인 H의 비도적적 행동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설에 삽입된 두 개의 편지, 특히 소설 마지막에 나오는 H의 마지막 편지는, 작가의 의도가 동준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게 해준

8) 『창조』 창간호에는 최승만의 희곡 「황혼」, 김환의 소설 「신비의 막」, 전영택의 소설 「혜선의 사」, 김동인의 소설 「혜선의 사」가 실려 있는데,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자유연애와 그로 인한 갈등을 다루고 있다. '창조'라는 제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창조』 동인들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창조는 파괴를 전제로 한 것인데, 파괴의 대상은 아버지, 유고, 전처 등으로 상징되는 과거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강요에 의해 성립된 구식결혼은 파괴의 대상이 되며, 전처와의 이혼은 '참혼인', '참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당연한 수순으로 표상된다.

9) 강요열은 전영택 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성격을 통해 인도주의적 주제를 제시한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한다. 강요열, 『전영택 연구』, 1981,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 왜냐하면 그녀의 편지는 동준이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기주의자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10] 여성의 창조가 하나님의 실수라는 극단의 논리까지 동준이 나아가는 근거는 H의 부정한 행위이다. 하지만 자신의 변심 이유를 밝히는 H의 편지는 둘의 파탄의 책임이 동준에게도 있음을 보여준다. 즉 편지의 고백은 남성 중심으로 전개된 전반부의 논리를 깨뜨리면서 상대방 여성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 균형있는 시각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혜선의 사 와 운명 은 주류 담론이나 남성-주체에 의해 가려진 타자들의 목소리를 살려내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으며, 이는 전영택 문학이 갖는 독특한 윤리감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균형잡힌 윤리적 시각이 작가의 종교적 신념에서만 비롯되었던 것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약자에 대한 관심, 주류담론이 배제한 타자에 대한 배려가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이며, 사회적 약자에 주목하는 전영택의 창작경향이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과 이웃에 대한 책임의식

천치? 천재? (1919)와 화수분 (1925)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11] 하지만 두 소설은 무의식적이고 간접화된 방식을 통해 기독교적 세계관을 성공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두 소설은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이기적 주체'가 고통받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윤리적 주체'로 거듭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두 작품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갖는데 첫째, 서술자가 등장하여 대상을 관찰한다는 것이다. 정상적 지력을 갖지 못한 '칠성', 가난한 화수분 일가가 관찰의 대상이다. 둘째, 관찰자와 대상 간의 관계가 비대칭적이다. 즉 천치? 천재? 의 경우 교사/학생, 정상인/비정상, 화수분 은 주인/하인, 부자/빈자의 관계를 맺고 있다. 셋째, 서술자가 대상인물을 관찰하는 가운데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이 암시된다.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주체가 윤리적 주체로 서게 된다는 주제가 톨스토이의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 주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천치? 천재? 와 화수분 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와 겹쳐 읽는다면, 전영택이 토대로 삼고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확실하게 드러난다.[12]

---

10) 첫 번째 편지에서 H는 동준의 무정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힐난하고 있다. 동준은 결혼과 가정을 혐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가 사랑은 신성하고 결혼은 인공적, 허위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H가 비난하는 요지는 사랑과 결혼을 극단적으로 이분화하는 동준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11) "예수 믿고 전도도 하였나이다."(「천치? 천재?」라는 구절을 통해 서술자가 기독교를 접한 적이 있음이 암시될 뿐이다.

12) 이와 같은 지적은 임옥인의 「노숙하는 노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즉 「천치? 천재?」. 「화수분」, 「노숙하는 노인」 등의 작품과 톨스토이 소설의 상동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소설이 근대 초기에 한국근대문학에 이미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전영택이나 임옥인의 소설과 톨스토이 작품의 영향 관계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은 이 소설과 톨스토이의 작품의 영향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이기적 존재가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윤리적 주체로 변모한다는 주제 의식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구조나 주제의 상동성이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적 세계관에 주목하여 창작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이 등가관계에 놓이게 되며, 이를 통한 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 서두는 구두수선공 시몬의 내면심리를 그리는 데 할애된다. 시몬은 자신이 집도 땅도 없는 처지이며, 빵값은 비싸고 변변한 겨울외투도 없다는 사실에 걱정한다. 꼼꼼한 돈 계산이 보여주듯, 그의 마음은 자기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 자기 염려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교회 앞에 웅크리고 있는 벌거벗은 낯선 자에게 관심을 가지려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기적 욕망을 넘어서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사람에게 존재하며, 그 사랑을 통해 이웃과의 만남은 물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이 톨스토이 소설의 주제이다. 즉 톨스토이 소설은 낯선 타인이 하나님의 현현이며, 그리스도인에게 이웃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의식이 존재한다는 기독교 교리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구조와 주제의식을 내장하고 있지만, 톨스토이의 소설에서는 천사 가브리엘과 하나님이라는 표지가 기독교적 주제를 직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반면, 전영택의 소설에서는 기독교적 소재가 등장하지 않아 기독교적 세계관과 무관하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뿐이다. 하지만 천치? 천재? 에서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의식과 이기적 자아에 대한 반성적 시각이 확인하기란 어렵지 않다. 서술자인 '나'는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지 못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월급 십이 원에 팔려 흥미도 없는 소학교 교사로 가게 된 자기의 처지에 자괴감을 느낀다. 득영학교에 머물게 되는 첫날, 추운 방엔서 잠을 자며 그가 걱정하는 것이란 "금년 겨울에 얼어 죽지나 않을까"라는 염려이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인물, 이기적 주체인 것이다.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천치'라고도 '천재'라고도 말하기 어려운 '칠성'이란 아이와의 만남이다. 얼굴 생김새나 떨어지는 지력으로 보면 칠성이는 천치처럼 보이지만, 천사와 같은 노랫소리나 저절로 움직여 가는 배를 만드는 창조력을 본다면 천재라고 할 법도 하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선생이나 가족들의 눈에 칠성이의 행동은 이해되지 못한 것으로 비쳐지고 결국 칠성이는 평양으로 가다가 추위에 지쳐 길에서 얼어 죽고 만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칠성이의 죽음에 대해 '나'가 느끼는 책임의식이다.[13] 소설 마지막에 덧붙여진 '자백'의 내용은 이러하다.

> 마지막에 내가 말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내가 자백하여야 될 일이 있습니다.
>
> 칠성이가 없어지기 전날에 학교에서 어떤 큰 학생의 시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을 하나씩 불러서 몸을 뒤져보았습니다. (…중략…) 전후를 생각지 아니하고 채찍으로 함부로 때리기를 몹시 하였습니다. 칠성이는 내가 죽인 셈입니다. 칠성은 남이 가진 시계에 욕심을 내어서 훔친 것은 아니외다. (…중략…) 나뿐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두 칠성이의 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동네, 그런 세상을 칠성이는 떠났습니다. (…중략…) 칠성이는 찬바람 몹시 부는 겨울에 버드나무 밑에서 눈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호호 불면서

리적 주체, 선한 그리스도인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3) 물론 '나'의 책임감이 돌발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는 생계 때문에 득영학교 교사로 오게 되면서도, 자기 자신으로 인해 아이들이 천치가 될 수도 있고 천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책임감'을 느꼈었다. 또한 십이 원을 거저 먹으려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꼈었다. 미약하게 존재하던 책임감과 부끄러움이 칠성이의 죽음으로 극대화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 듯하다.

바들바들 떨다가 죽은 것은, 오직 밤새도록 자지 않고 반짝이던 하늘의 별들이 내려다 보았을 줄 아나이다. (천치? 천재? , 1994: 67-68. 밑줄—인용자)

"칠성이는 내가 죽인 셈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칠성의 죽음에 대한 '나'의 죄의식은 크다. 여기서의 죄의식이란 단순히 자신의 만년필을 깨뜨린 것에 대한 분노로 칠성이를 채찍질했다는 잘못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상성이란 기준으로 칠성이를 재단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 자신의 행위가 결국 정상성의 범주에 들지 못한 칠성이를 죽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반성이다. 즉 무관심으로 타인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근원적인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성과 자각은 소설 초반부의 '나'의 태도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초반부의 '나'는 월급 십이 원으로 상징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자아,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이 천진한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공모자라는 인정은 윤리적 주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진정한 윤리적 주체라면 칠성이와의 만남에서 더 적극적인 윤리적 실천이 이루어져야 할 터이지만, 소설에서는 이기적인 주체의 행위가 빚어낸 비극의 풍경을 제시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 하지만 윤리적 주체의 실천이라는 면은 역설적으로 독자의 독서행위를 통해 획득된다고 할 수 있다.

화수분 에서 역시 동일한 서사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가난한 화수분 가족을 관찰하는 역할은 주인집 남자인 '나'에게 맡겨져 있다. '나'의 가족은 화수분 일가에 비한다면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최소한 먹을 것과 거처에 대한 걱정은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반면 아홉 살 먹은 큰딸을 남모르는 사람에게 맡겨 버릴 정도로 화수분네 식구들은 극한의 궁핍에 처해 있다. 하지만 화수분 일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동정과 연민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한다. 형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화수분이 시골로 가게 될 때, '나'와 아내의 대처는 그들의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고정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아내는 "김장이나 해주고 가야 할 터인데"라고 걱정하고, '나'는 "곧 댕겨오게, 겨울을 나서는 안 되네."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 부부가 몰인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 이상이 되지 못함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결국 화수분의 아내는 둘째 딸을 끌고 시골로 내려가다가 화수분을 만나고, 셋은 한데서 겨울밤을 보내다가 동사하며 소설을 끝난다.

나무 밑 눈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어린 것 업는 헌 누더기를 쓰고 한끝으로 어린 것을 꼭 안아가지고 웅크리고 떨고 있다. 화수분은 왁 달려들어 안았다. 어멈은 눈의 떴으나 말은 못 한다. 화수분도 말을 못 한다. 어린 것을 가운데 두고 그냥 껴안고 밤을 지낸 모양이다.

이튿날 아침에 나무장수가 지나다가, 그 고개에 젊은 남녀의 껴안은 시체와, 그 가운데 아직 막 자다 깬 어린애가 등에 따뜻한 햇볕을 받고 앉아서, 시체를 툭툭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어린 것만 소에 싣고 갔다.(화수분 , 1994: 204)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화수분 의 마지막 부분은 제3의 시점에 의해 객관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그러나 '나'가 화수분을 천거해 주었던 동생에게서 전해들은 말을 토대로 재구성된 것이므로, 이 마지막 부분은 '나'의 시점에서 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객관적이고 냉정한 관찰처럼 보이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자기염려에 사로잡힌 주체가 화수분의 죽음을 자기의 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암시한다. 관찰인물의 동사(凍死)로 동일하게 끝나는 두 소설이 전영택의 비관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영택이 강조하는 바는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이기적 주체의 행위가 갖는 비윤리성에 대한 지적,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 자신에게 타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의 증명에 있을 것이다.

본장에서는 자연주의적 경향이라고 평가되어온 전영택의 초기 소설들에 포함된 기독교적 세계관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전영택의 소설은 주류담론이 배제하고 억압하는 타자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한편, 타자를 관찰하는 행위를 통해 윤리적 주체의 자각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주제가 서술자가 대상인물을 관찰하는 서사구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형상화됨을 확인하였다. 천치? 천재? 와 화수분 에서 관찰자와 관찰대상은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관찰자는 대상인물보다 지적, 경제적으로 월등한 입장에 있으며, 부유한 삶을 영위하는 이들은 자기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라는 한계를 갖는다. 즉 그들은 의식주의 문제에 집착하는 존재, 자기 삶의 향유를 최우선으로 삼는 이기적 주체들이다. 그런데 소설에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며 이기적 주체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고, 이로써 자기 염려에 사로잡힌 존재가 윤리적인 주체로 전환될 계기를 맞게 된다. 이처럼 전영택의 소설은 직접적으로 기독교적 소재를 적극 활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에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는 기독교적 윤리를 전달해 주고 있다.

3. 비혈연가족 공동체의 모색과 기독교적 사랑: 임옥인의 소설

임옥인은 1939년 8월 《문장》지에 봉선화 가 추천되면서 창작활동을 시작하여, 90여 편의 단편소설, 13편의 장편소설을 남긴 작가이다. 그녀는 분단과 전쟁, 가난과 고독의 현실에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자신의 삶과 문학에서 실천하려했던 기독교문인이었다. 그러나 동시기 작가에 비하여 그녀에 대한 문학적 평가는 약소한 편이다. 임옥인에 대한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관심이 소홀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임옥인의 문학이 기독교적 교훈주의에 함몰되어 서사적 긴장을 잃었다는 것이다.[14] 그러나 임옥인 소설에서 기독교적 주제가 직접적인 드러나는 경우는 몇

14) 임옥인 문학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던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명작가 중심의 문학연구 풍토에 원인이 있다. 유명작가 중심의 서술이 반복·재생산되는 과정에서 임옥인과 같이 전형성을 띠지 못하는 작가의 작품이 소외되는 것이다. 둘째, 여성작가라는 제약이다. 특히 전후후문학연구의 경우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등 남성작가 편향의 경향을 뚜렷이 보임에 따라 여성작가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던 것이다. 셋째, 임옥인의

몇 장편소설에 국한되는 문제이다. 단편소설에서도 기독교 정신이 작품의 기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은 보편적 사랑이나 연민으로 간접화되어 오히려 서사적 탄력을 높이는 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 비혈연가족 공동체의 가능성

임옥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주인공으로 즐겨 그리며, 실험적인 작품을 쓰기보다 현실에 가까운 소설을 쓰고자 노력한 작가였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나 내가 그리는, 또 그리랴는 세계는 주로 여자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내가 문장의 길을 걷는데 최단거리요 또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임옥인, 1940: 163)"라고 문단 데뷔 소감에서 밝힐 정도로, 임옥인은 등단 초기부터 여성작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해방 이전에 발표된 다섯 편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모두 여성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인텔리 여성에서 가난한 하층민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녀들이 처한 상황과 여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작가의 관심은 여성인물들의 삶, 특히 여성인물의 내면심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인한 생활력과 주체성을 가진 개성적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분열적인 양상으로 가부장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여성인물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라는 특성은 해방 이후 작품들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경향이다. 무에의 호소 (1949), 부처 (1953), 구혼 (1954), 노숙하는 노인 (1957)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이유는 다양하다. 전후의 불모적 현실이기도 하고(부처), 어쩔 수 없는 가난과 인간의 이기심이기도 하고(무에의 호소 , 노숙하는 노인), 불구라는 신체적 장애이기도 하다(구혼). 하지만 작가의 관심은 이들을 불행하게 하는 사회적 모순을 들춰내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작가는 사회구조나 인간의 이기심보다는 이 이웃을 향해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베푸는 선한 사람들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등장시키는 이 소설들의 독특한 지점은 작가가 혈연공동체를 넘어선 대안적 가족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부처 의 부부는 구두 고치는 일과 조그만 잡화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난한 피난민이다. 그들 부부의 꿈은 백만원을 모아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이다. 부부는 두 달이면 백만원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현실은 있는 돈조차 꺼내쓰도록 만든다. 아내가 앓게 된 탓도 있지만 전쟁 전 알고 지내던 '복순엄마'의 처지를 모른 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짓기의 꿈은 어느 정도 유예되고 만다. 게다가 늦은 장마로 개울바닥에 지은 하꼬방과 장사 밑천인 미군상자가 떠내려가면서 부부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또 벌어서 내년 봄에는 틀림없이 짓지."라고 다짐

문학이 기독교적 교훈주의에 함몰되었다는 편견이다. 임옥인 소설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신념이 보수주의나 반공주의와 결탁되는 문제를 노출할 뿐만 아니라, 당위로 제시되는 주제의식이 서사적 긴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하며 부부는 끝내 희망을 놓지 않으며, 특히 그들이 집을 지어 함께 살자던 '복순엄마'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연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에의 호소 는 '가정'이 단지 혈연을 기준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이 소설의 가정은 외적으로 볼 때 비정상적이다. 주인공 '철순'은 난봉꾼 남편이 많은 유산을 남기고 죽자 딸 '영주'를 잘 키우려는 마음에 환갑이 넘은 노인과 재혼을 한다. 재산을 빼앗아갈 친척과 주변으로부터 울타리 구실만 해줄 남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설에서 애잔하게 그려지는 것은 피 한방울 섞이지 않은 딸 '영주'와 의붓아버지 사이의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임옥인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소설의 중요한 주제로 내세우게 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적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 적극적 실현으로서의 비혈연가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 소설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이 소설들에서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구호 이상의 절실한 구체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15]

(2) 이해의 지난함과 소설적 감응력

이웃에 대한 적극적 사랑은 노숙하는 노인 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주제이다. 새벽기도에 갈 때마다 마주치던 노숙하는 노인을 양로원으로 보내기까지의 우여곡절을 그린 노숙하는 노인 의 '나'가 고민하는 핵심도 바로 자신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즉 매서운 추위와 배고픔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된 벙어리 노인을 보면서 "그 노인에게 대한 나의 대접은 어쩌면 내가 사랑을 배우겠다는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의 변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으며 알기 원했던 '사랑'의 의미가 노숙자 노인의 존재를 통해 계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숙자 벙어리를 노인에게 따뜻한 음식과 집을 제공하는 환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동정과 배려, 딸과 의붓아버지 사이의 관심과 사랑은 이상적인 모습이지 현실은 아니라고 비판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강조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설교조의 소설이란 기껏해야 감상적 교훈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약자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주제로 형상화한 임옥인의 소설이 서사적 긴장을 잃은 채 단순한 교훈주의로 함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아니, 이 소설들이 독자들의 마음에 던지는 정서적 울림과 파장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는 게 정확할 듯하다. 정서적 감응력을 형성하는 일차적인 이유는 소설에 구현된 사랑이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삶고 밀착된 실제적 소재에서 비롯되는 생생한 사실성(핍진함)이, 구태의연한 이야기들이 관념적 피상성으로 빠져드

15) 자녀가 없었던 임옥인과 방기환 부부의 둔촌동 집은 늘 문인이나 고아, 고학생의 처소였다는 것은 문단에서 유명한 사실이라고 한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었던 탓도 컸겠지만 실제로 임옥인은 고학생들을 거두어 자식처럼 돌보았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임옥인 문학의 그 장점이며, 『일상의 모험』에서 그 강점이 극대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가 일련의 소설에서 사랑의 실천을 역설하면서도, 이웃 사랑의 실천이 결코 쉽거나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암시하는 데서 오는 진정성도 서사적 긴장을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구혼 의 '청년'과 '정애', 노숙하는 노인 의 '나'와 '노숙자 노인'은 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다. 유복한 집안 출신의 청년이 무엇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처지라면, 고아나 다름없는 맹인 여성인 '정애'는 모든 것을 결핍한 존재이다. 평생 '당신의 눈'이 되겠다는 청년의 편지 내용이 보여주듯, 둘의 사랑이란 한 사람의 일방적 베풂에 의해 이루어지는 불균형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 노숙하는 노인 의 관찰자와 대상인물의 관계 역시 동일하다.

> 그 거적대기와 누더기를 둘러쓰고 언 땅바닥에서 노숙(露宿)하는 노인을 본 다음 시간부터 나의 기도의 줄은 끊어지고 어두운 문이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 '아아!'
> 나는 염원 대신 신음소리를 내면서 마룻바닥에 엎드리기도 했다.
> '어떻게 하오리까?'
> 다른 모든 기원 대신 내 입에서는 이 한 마디만이 새어나왔다.
> '네 형제 중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 한참 만에 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 성경 구절이 마음에 떠올랐다.
> 이것은 또한 내가 기다리는 그 그리운 음성 그것이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갈망하는 바로 그 모습이기도 했던 것이다.
> '사랑이 무엡니까? 주여, 그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을 더듬어 알게 해 주십시오!'
> 사실 이 무렵 내게 있어서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은 '사랑' 그것이었던 것이다. 아니 앞으로 죽는 날까지도 내가 구해야 할 제목은 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 아아, 어찌해서 그렇게 소중하다는 소망보다도 그다지 귀중하다는 믿음보다도 사랑은 더 중하고 고귀한 것이 되는가? 사랑 사랑 사랑! 나는 이 사랑이라는 어휘를 가슴에 새기고 입 속에 굴리며 자꾸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만으로 어떻게 알 수 있으랴? (노숙하는 노인 , 1957: 167)

노숙하는 노인 의 '나'와 '노숙자 노인'의 관계 역시, 경제적 토대와 윤리의식을 갖춘 '나'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노인'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불균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집과 음식이 제공되는 양로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나'의 강박은 철저히 우월한 입장에서 고안해낸 최선의 방법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소설의 서술자는 기도와 실천의 이중적 과정을 통해 벙어리 노인이 자신이 사랑해야 할 이웃임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을 대접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윤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숙하는 노인 은 전영택 소설에서 계기로만 발견된 윤리적 주체를 적극적으로 구현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노숙하는 노인 이 주는 감동은

가난한 이웃을 환대해야 한다는 단순한 교훈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순간에도 인간이 이기적 주체일 수 있음을,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소설의 감동은 발생한다.

> 그제서야 어느 모를 세계에 시선을 보내며, 주위와는 완전히 격리된 세계에 앉아 있던 노인의 젖은 눈이 나를 내려다보며, 머리를 끄덕끄덕해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은 조금도 반갑다거나 고맙다는 뜻의 그것이 아니었다. 다만 하나의 수긍인 표시였을 뿐이었다. (…중략…) 여전히 그 외마디였으나 반가움도 고마움도 아닌, 어색한 표정이었다.
>
> 무정하고 불결한 현실 속에 뛰어들어 내 몸을 탕탕 부딪혀 가면서 사랑을 배우리라던 나의 기도는 그러나 그러한 대상의 구원의 길을, 어떻게 더듬을까에 대하여 실로 다시 암흑과 같은 좁고 힘든 길을 더듬지 않으면 안 되리라.
>
> '나는 살인을 면했다.' (앞의 책: 186)

소설 말미에서 보듯 벙어리 노인은 양로원에서 다시 빠져나와 원래의 노숙자의 신세로 돌아온다. 자신이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는 희열, 얼어죽을 노인을 구해냈다는 기쁨, 살인을 면했다는 안도감을 느끼던 '나'에게는 충격적인 결론이다.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는 딴 세계에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노인의 표정을 보며 어떤 낯설음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나'가 노인의 얼굴에서 발견하는 이 낯설음은, 자신의 연민과 동정이 약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불안에서 오는 감정이다. 즉 노인이 양로원에서 더 행복할 수 있다는 판단은, 노인의 진짜 행복과는 무관한 철저히 '나'가 상상해낸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벙어리 노인의 처지에서는 노숙자 생활이 더 행복할 수도 있고, 팥죽집 앞에서 노숙을 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중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구혼 의 청년이 청혼을 거절당하자 '정애'를 멀리서만 바라볼 뿐 다시 다가가지 않는 것도, '정애'를 진정한 인격으로 대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임옥인의 소설은 약자를 향한 시선에 의도치 않은 폭력이 동반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Ⅲ. 결론

로크마커는 예술에서 기독교성을 결정짓는 것은 채택된 주제가 아니라, 거기 담긴 정신이라고 역설한다. 예술이 투사하고 있는 실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진정 성경적이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의한다면, 기독교문학에서 중요한 점은 목회자가 등장하는가, 혹은 성경을 인유하고 있느냐에 있지 않다. 기독교문학의 관건은 정신의 문제, 세계관에 놓일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한국기독교문학 연구는 기독교 소설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성공적으로 형상화된 사례가 없었음을 강조하였다. 본고 역시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정착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죄의식과 구원의 문제가 진지한 소설적 주제로 형상화되지 못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기독교문학의 가능성과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비판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정성을 드러내기보다는 기독교 소설이 성취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갈 바를 모색해 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목적 하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전영택과 임옥인 두 작가의 소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영택과 임옥인의 소설에 공통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가 주된 인물로 등장하며, 이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존재함을 이 소설들이 일깨우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설정한 주변적이고 소외된 이웃은, 성경이 말하는 과부와 고아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동정어린 연민을 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점에 두 작가의 새로움이 있다. 전영택의 경우는 냉정한 관찰을 통해 독자에게까지 윤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임옥인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혈연을 넘어선 비혈연가족 공동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두 작가의 소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독교 교리 위에서 창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두 작가의 소설들은 독자감응력 부분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서울: 문학과지성사.

강요열 (1981). “전영택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김만수 (2008). 「늘봄 전영택의 삶과 문학」. 『화수분』 해설, 서울: 문학과지성사.

김봉군 (2010a). 「한국 기독교 문학론 서설」.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1』. 서울: 박문사.

김봉군 (2010b). 「기독교 문학의 본질과 방향」.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1』. 서울: 박문사.

김세령 (2000). “전영택의 초기 소설 연구”. 『상허학보』.

김연숙 (2001).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고양: 인간사랑.

김영한 (2009). 『기독교 세계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박원빈 (2010). 『레비나스와 기독교』. 서울: 북코리아.

백철 (1964). 『한국문학의 이론』. 서울: 정음사.

서동욱 (2000).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지성사.

소영현 (2007). “1920년대 초반 예술/윤리의 자기구성”. 『현대문학의 연구』.

송하춘 (1976). “전영택 문학의 특질”. 『월간문학』.

오창은 (2009). “식민지 지식인의 근대 인식과 윤리의식”. 『한국문학논총』.

임희종 (2006). “늘봄 전영택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정재림 (2010). “근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의 세 양상: 이광수, 김동인, 김동리의 경우”. 『서강인문논총』 27. 265-292.

표언복 (1996). “늘봄 전영택의 생애와 사상”. 『기독교사상』.

표언복 편 (1994). 『늘봄 전영택 전집 제1권』.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표언복 편 (1994). 『늘봄 전영택 전집 제2권』. 대전: 목원대학교 출판부.

한승옥 (2010). 「기독교와 소설문학」.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1』. 서울: 박문사.

홍문표 (2010). 「기독교 문학의 새로운 인식과 과제」.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총서1』. 서울: 박문사.

Scheler. M. (1973). Wesen und Formen der Sympathie. Bern. 조정옥 역 (2006).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서울: 아카넷.